

2025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4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임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운 것과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음

성경: 빌 3:7-8, 계 3:12, 21

[빌 3:7-8]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⁸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계 3: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계 3:21]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I.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빌 3:8 상.

[빌 3: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A. 8 절부터 11 절까지는 하나의 긴 문장이다. 이것은 계단과 같이 우리를 점점 더 높이 이끌어 11 절에 있는 정점에 이르게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빌 3:8-11]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⁹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¹⁰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¹¹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B.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5 절과 6 절에서 열거했던 이전 종교에 속했던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빌 3:5-6] 나는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며, ⁶ 열정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C.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은 그분의 인격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1.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대해 열성적이다.
2. 바울도 이 율법에 열성적이었다.
3.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을 때(갈 1:15-16), 바울은 탁월하시고 극도로 고귀하시고 지극히 보배로우시고 뛰어난 가치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탁월한 율법을 훨씬 능가하신다는 것을 보았다.
[갈 1:15-16] 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¹⁶⁾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4.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5.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그 율법에 따라 세워진 종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II.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 빌 3:8 하.

[빌 3: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A.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1. “으로 말미암아”로 번역될 수 있는 ‘때문에’라는 표현은 7절과 8절에서 세 번 사용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두 번 사용되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을 말하면서 한 번 사용되었다.

[빌 3:7-8]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⁸⁾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 a. 그리스도는 율법, 율법에 대한 열성, 율법의 의와 대조된다.
 - b.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과 그리스도 자신은 모든 것과 율법에 대조된다.
 - c.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율법에 대한 열성과 율법의 의와 다른 모든 것을 버렸다.
 - d.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과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이나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가리킨다.
2. 배설물은 개들에게 던져주는 찌꺼기, 쓰레기, 오물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가 먹는 것, 곧 똥을 의미한다.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와 결코 비교될 수 없다.
 3.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일 뿐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인격을 얻는 것이다.
 - a. 그리스도는 신격의 충만이 몸을 지니신 분이시며 (골 2:9),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그림자의 실재이시다(골 2:16-17).

[골 2: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골 2:16-17]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룻날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¹⁷⁾ 이런 것들은 장래 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 b. 어떤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c.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여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엡 3:8)을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다.
[엡 3: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B.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 빌 3:8 하.

[빌 3: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1. 오늘 우리의 필요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 소유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이다.
2.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 a. 헬라어에 따르면, ‘얻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은 빌립보서 3장 7 절에 있고 동사형은 8 절에 있다.

[빌 3:7-8]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⁸⁾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 b. 이러한 얻음은 계시로 말미암아 온다.
- c. 우리는 너울이 벗어짐으로써 신약의 여러 책들, 곧 요한복음, 로마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 d.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보아야 한다 — 롬 9:5.

[롬 9:5]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 e.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단지 그분을 보는 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얻기 위한 것이다.
- f. 그리스도를 본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
 - (1) 우리는 본 것을 얻기 위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2) 이것이 빌립보서 3장 8 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라고 한 후 그 절의 끝에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3.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분투하며 추구하는 이기는 이들을 필요로 하시다 — 빌 3:8, 12.

[빌 3: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 a.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분투하며 그리스도를 추구한 이였다.
- b. 우리를 포함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이가 거의 없다.
- c. 우리가 비록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판에 박힌 교회 생활과 일과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 만족하는 가운데, 단지 어느 정도까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도 있다.

- d. 이와 같이 판에 박힌 것들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분투하도록 만들 수 없다.
- e.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는 이들, 곧 이기는 성도들을 필요로 하신다 — 계 3:12, 21.
 [계 3: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계 3:21]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 f. 일세기 때로부터 주님은 이기는 이들을 부르셨고(계 2:7, 11, 17, 26-28, 3:5, 12, 21), 오늘날 여전히 이기는 이들을 부르고 계신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계 2:11]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는 결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계 2:1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계 2:26-28]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²⁷⁾ 그는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권위를 줄 것이다. ⁽²⁸⁾ 나는 또 그에게 셋별을 줄 것이다.
 [계 3:5] 이기는 이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계 3: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계 3:21]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 g. 심지어 독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조차 이기는 이들, 곧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을 찾기가 어렵다.
- h.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기는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 i. 하나님은 이기는 이들을 부르고 계신다. 하지만 누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 j. 누가 그리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써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 k.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기는 이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함으로써 그리스도께 호의를 베풀기 바란다 — 계 21:7.
 [계 21:7] 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